

중 해커 제 1표적... '광주과기원 사이버 보안센터' 르포

# “뚫을 테면 한번 뚫어 봐!” 24시간 초단위 철통 감시

국가정보원은 최근 “지난 2004년부터 13만여건의 정부 자료가 북한 및 중국발(發)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커들의 주요 공격목표 중 하나가 광주과학기술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과학기술원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심하세요”다. 역설적이지만 중국 해커들의 공격이 광주과학기술원에 집중되는 것도 이 곳의 보안이 너무 잘 돼있기 때문이다. 해킹 시도는 여러 차례였어도 피해사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 직원 4명 실시간 감시시스템 체크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동인 금호관 1층에는 교직원용 패스를 갖고도 통과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G-CERT(GIS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광주과학기술원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를 지난 23일 찾았다. 사이버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4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G-CERT’ 관제센터는 중앙에 6개의 대형모니터와 9개의 데스크형 모니터가

설치돼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전산망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곳이다. 모니터에는 초 단위로 정보들이 올라왔다. 적색, 오렌지색, 녹색으로 위험 수위를 표현하고 있었다. 적색 표시들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했다.

전산팀 이종길씨는 “수상한 행동을 감지되면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자동적으로 해당 IP를 차단하게 된다”며 “현재 해킹 위협으로 인해 차단해놓은 중국 사이트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보안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 현재 센터의 절반 규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광주과학기술원 내 전산시스템을 꾸리기 시작

## 해커 집중 공격에도 피해 없어

했다. 지난 2006년에는 5개년 계획을 짰고,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센터도 지금의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센터 구축에는 10억여원이 들었다고 한다.

상주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대전 대학연구단지 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관제센터로 임무가 이관된다. 시스템이 아닌 인력

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광주과학기술원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해준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철통보안은 전국적으로도 정평이 나왔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과기부가 3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앞선 2004년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대상에도 선정됐다.

## ‘정보 보안’ 2년연속 1위 선정

이규대 팀장은 “해커들은 영웅심리가 있어서 보안이 잘된 곳으로 알려지면 더 기술을 부린다”며 “24시간 감시체제로 전산망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사용자의 보안 의식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며 “방화벽으로 아무리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 23일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G-CERT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을 공격 목표로 삼은 중국발 해킹이 잇따르고 있지만, 24시간 감시체제 덕에 철통보안을 자랑한다. /최현배기자 choi@

## 나원침 (7636) 김광두



다들 물어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문의 ▶서문동본사: 02) 3445-0943 ▶나주공방: 061) 337-0571

## 광주·전남 환경미화원 34명

# 지자체 상대 체불임금 소송

## 大法 “통상임금 잘못 지급” 판결 따라 이달 내 제기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환경미화원 10명과 전남지역 환경미화원 24명 등 모두 34명은 이달 안에 광주시 동구·북구와 함평군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자체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지자체는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을 늦게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소시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 제기가 가능한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불받지 못한 임금은 매월

40만~50만원 가량이며 해당하는 수당을 합산하면 1인당 1천만~1천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지역 다른 시·군·구의 환경미화원은 물론 퇴직했던 미화원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할 움직임이어서 체불임금은 더욱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참터 관계자는 “광주 300명, 전남 200명 등 전체 미화원으로 확대될 경우 체임 규모는 족히 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중 계란 분말서 또 멜라민

계란분말 등 중국산 알(卵) 가공품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4일 중국 ‘대원 그린스노우 알 제품 개발사(社)’로부터 수입한 3건의 제품에서 1.3~2.5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호남예술제 미술부문 입상작 전시

즐거워하고 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참가한 ‘색채 그림대회’ 입상작 321점과 초·중·고등부 최고상·금상·은상 수상작 489점 등 모두 800여점이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4일 광주 지하철 금호로 4가 역에서 개막된 광주일보사 주최 ‘제 53회 호남예술제 미술부문 입상작 전시회’에서 광주 세운그림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그린 작품을 둘러보며

## 가뭄 길어진다

## 남부, 내년 1월까지 지속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여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내년 1월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516mm로 평년 강수량(721mm)의 72%에 불과했다. 최근 36년(1973~2008년)간 이보다 적었던 해는 5년뿐이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평년(682mm)의 25~45%에 그치는 등 극심한 물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주요 가뭄지역의 평년 대비 강수량은 고흥 38%, 여수 42%, 장흥 44% 등이며, 경남 산청 25%, 경남 거창 26%, 경남 남해 31%, 경남 진주 34% 등 남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번 가뭄은 지난 7~8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데다 9~10월에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전남 교육공무원 302명 징계

## 음주 운전엔 성추행까지... 5년동안 45명 중징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 운전, 공금 횡령 등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전남지역 교육공무원이 2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552명), 서울(484명), 강원(283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다. 광주는 39명이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2004년 69명 ▲2005년 61명 ▲2006년 50명 ▲2007년 55명 ▲2008년 28명 등 5년간 총 263명이 각종 범죄나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51명(57.4%)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였으며, 근무태만 24명(9.1%), 성추행·간통 등 성문제 22명(8.4%), 기타 20명(7.6%), 강도·절도·폭력 11명(4.2%), 공금 횡령 10명(3.8%) 등이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을 당한 전남지역 교육공무원은 3명이었고, 해

임 12명, 정직 1~3월 29명 등 44명이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율은 16.7%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견책·불문경고·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광주는 39명의 비위공무원 중 43.6%인 17명이 음주·무면허 운전이었고, 근무태만 7명(17.9%), 성문제·금품수수·정치활동·기타 등 4개 항목이 각각 3명(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명만 파면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 4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4일 북한의 체제를 추종하는 단체를 구성해 북측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를 수형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은 특히 실천연대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1997년 제 연대 최후의 집행위원회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2001년 12월 북한의 체

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민간 교류를 빙자해 중국에서 북측을 접촉해 지령을 수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실천연대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1997년 제 연대 최후의 집행위원회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2001년 12월 북한의 체

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 핵심간부 6명은 2004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남북 통일연대와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의 회담에 참석, 북한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민화협 관계자로 위장한 북한 대남 부서 통일전선부 소속 2명에게 지령을 받은 혐의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지령은 ▲수령금을 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안한 조국통일 3대 현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이적단체

## 대검, 최규선 유전게이트

## 김상현 전 의원 구속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성 검사장)는 24일 최규선(48) 유아이네너지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상현(73)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6선(選) 의원을 지낸 옛 여권의 중진이었으며 지금은 민주당 평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순 서울로 호전될 식당에서 최씨를 만나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순천시도 ‘묻지마 범죄’

## 40대, 귀자길 여성 둔기 폭행

순천경찰은 24일 귀가 중인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둔기로 폭행 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4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새벽 0시 25분께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학교 맞은편 골목길에서 귀가중인 A(여·19)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의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 예배보러 와서 교인들 지갑 슬쩍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척하며 교인들의 지갑에서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걸렸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14)양 등 4명은 지난 12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교회에서 주부 최모(48)씨의 손지갑을 뒤져 현금 11만원을 빼내 달아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교회·아파트·편질방 등에서 현금 63만원을 훔쳤다는 것.

○A양 등은 교회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보러왔다”며 거짓말을 한 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교인들의 지갑을 틀러 훔쳤다고.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은 “최근 가솔했는데 편질방과 오락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떨어져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기자 galee@

가을의 한 가운데 10월 25일 (음 9월 27일)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 지겠다. 광주, 포항, 안동, 여수, 구례, 해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남원, 흑산도.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11:35 썰물<04:32, 여수 밀물<06:42 썰물<00:29. 26(일)~27(월) 날씨, 최저/최고 10/20, 6/21, 8/21, 8/20, 8/19, 8/20.